

경제산업성, 「농업산업화지원 워킹그룹(WG)」 설치

◆경제산업성은 12월9일,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「농업산업화 지원 워킹그룹(WG)」을 설치. 설치목적은 경제산업성이 보유한 기업의 수익력 강화 노하우를 살려, 저렴한 농작물이 수입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국내 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

◆경제부처인 경제산업성이 주도하여 농업 경쟁력강화 대책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

□ 경제산업성은 12월 9일, 국내농업대책을 검토하는 「농업산업화지원 워킹그룹(WG)」을 경제산업성내에 설치했음

○ 멤버는, 마쓰시타 경제산업성 부대신을 의장으로 관계 부국장, 지방경제산업국장, 일본경단련, 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등, 관계 단체간부 약30명으로 구성

* 기타, 내각부 오키나와(沖縄) 종합사무국경제산업부장,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이사 등이 참여

□ 농업산업화지원 워킹그룹(WG) 설치 배경

○ 경제산업성이 보유한 기업의 수익력 강화 노하우를 살려, 가격이 저렴한 농작물이 수입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

- 경제산업성이 농림수산성의 소관인 농업지원을 실시하는 배경에는,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협정(TPP)참가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

- 또,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농업강화를 위해 간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「식(食)과 농림어업의 재생 추진 본부」를 설치.
- 그러나, TPP에 소극적인 멤버도 많은데다가 벌써부터 논의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업개혁의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,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

□ 워킹 그룹의 기능

- 워킹그룹은 농업의 산업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△농업의 산업화와 관련되는 종합적인 대책기획입안 및 그 실행에 관한 사무총괄, △경제산업성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농업 산업화를 추진
- 워킹그룹의 서무는 관계부서 협력을 얻어 지역경제 산업정책과에서 담당

□ 구체적인 검토 사항으로 △농산물의 국내유통 원활화, △수출지원, △식품가공산업의 강화, △육내에서 야채 등을 효율적으로 재배하는 「식물공장」 전개, △농촌에 대한 공장유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

- 향후, 워킹그룹은 농업관계자에게 대한 현장 조사나 지역 농민의 니즈를 파악한 후, 구체적인 지원책을 정리할 예정

□ 현재, 일본정부도 무역의 자유화와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양립시키기 위해서 「식(食)과 농림어업의 재생추진본부」, 「식(食)과 농림어업의 재생 실현회의」 등, 농업강화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, 아직은 초기단계

- 그러나 이들 농업대책이 일본의 EPA, FTA, TPP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써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농업강화책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“경제산업성에 농업의 발본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를 없을 것이다” 라고 문제제기